공장지대 영등포, 미세먼지 1위… "그린 인프라 필요"

서울연구원 자치구별 미세먼지 분석

5년간 평균 49㎍/㎥로 농도 높아
녹색길 조성해 주거 유입 막아야

관악〉구로·강서〉서초〉성동 順
시내보다 시 외곽 지역이 더 많아

공업지, 주거 혼재지역 그린인프라 조성. /서울연구원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세먼지의 공간 분포를 보면 서울 외곽지역이 서울 시내보다 상대적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원녹지, 하천, 습지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가로수와 녹색길로 연결, 그린인프라를 확대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7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농도가 49㎍/㎥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악구(47.7㎍/㎥), 구로·강서구(47.5㎍/㎥), 서초구(47.4㎍/㎥), 성동구(46.9㎍/㎥), 강남구(46.8㎍/㎥), 강동·중랑구(46.6㎍/㎥)가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시 외곽지역(경기)의 지난 5년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2.6~64.8㎍/㎥의 범위로 나타났다. 시 외곽지역이 서울 시내보다 상대적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서울연구원은 '그린인프라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과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교통량, 토지이용 등 복잡한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대규모 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PM-10 농도가 낮았다"며 "그린인프라 간의 연결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창출, 삶의 질 개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그린인프라 연결성이 낮은 동대문구 장안동 남부 상업지와 영등포구 양평동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그린인프라 조성 방안을 연구했다. 그린인프라란 자연적인 공간 또는 자연에 가까운 기반 시설로 공원이나 산림을 뜻한다.

장안동 조사대상지는 안골 어린이공원, 미나리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 두 곳만 조성돼 있어 공원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상업지역 내 가로수가 없어 그린인프라 연결성이 낮고 큰 대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가 혼재해 있다.

연구원은 "장안동 상업지역은 인도와 도로가 분리돼 있지 않고 가로수가 없으며 차량의 통행이 잦으면서 인구 이동이 많아 이에 적합한 그린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규모의 느티나무 심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바람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 미세먼지가 머물러 있지 않고 도로를 따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나무를 같은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식재할 것"을 제안했다.

영등포구 양평동 4·5가에는 대규모 공장, 업무시설, 소규모 주거지가 들어서 있다. 업무시설 주변으로 야외 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며 차량통행이 많아 도로를 따라 미세먼지의 주거지 유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연구원은 "양평동 일대는 공장과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다"며 "공장을 따라 느티나무를 촘촘하게 심어 공장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소음을 차단하고 주거지로 미세먼지 유입이 덜 되도록 도로 방향으로 키 큰 느티나무, 키 작은 소나무, 관목, 초본 순으로 다층 밀식 식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박원순 "일몰 예정 공원 정부가 매입해야"

〈서울시장〉

공원일몰제 대한 정부 지원 강조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토건사업을 줄이면 내년 일몰 예정인 도시공원을 정부 재정으로 매입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7일 청주 구룡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가 두꺼비생태공원에서 개최한 '구룡산 지키기 시민운동 응원과 격려의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일몰제 이후 개발이 가능해진 서울 내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하려면 12조가 필요하다"며 "당장 매입이 필요없는 지역을 제외한 매입비는 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열린 '구룡산 지키기 시민운동 응원과 격려의 주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서울시는 산기슭을 매입해 산 위 땅은 개발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빚을 내서라도 시민 숲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이곳의 고충을 들어봤는데 행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합의를 끌어내 귀한 자연이 보존됐으면 좋겠다"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조사·연구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아 결심하면 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는 만만치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토건적 사고를 줄이면 일몰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구룡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물총놀이로 무더위 날려버려' 무더위가 찾아온 7일 서울 신촌 물총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물총을 쏘고 있다. /연합뉴스

쉼터·이동목욕車… 무더위 취약계층 보호

서울시 21개 쉼터 24시간 개방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쉼터 26곳과 이동목욕차량 3대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쉼터에는 에어컨과 샤워시설, TV 등이 설치된다.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총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21개 쉼터는 24시간 개방한다. 쪽방상담소는 무더위쉼터 위치와 운영 시간,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한다.

이동목욕차량 3대는 고속버스터미널, 영등포역, 종각역, 탑골공원, 청량리역 등 5개 지역을 돌며 운영한다.

시는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중증질환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노숙인 118명과 쪽방주민 146명을 선정해 건강상태를 집중 관리한다. 노숙인에게는 시설입소, 임시주거지, 병원진료 등을 지원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요양병원 입원이나 보호시설 입소를 안내했다. 쪽방에 남은 주민은 전담 간호사가 매일 1회 이상 거주지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무더위쉼터 모습. /서울시

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폭염 시간대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 등을 1일 1~4회 순찰한다. 탈진증세 등 위험 대상자를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고 무더위쉼터로 이동시키거나 음용수를 제공하는 등 구호활동을 펼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버려진 물건이 패션으로 '새활용 디자인 공모전'

서울시는 '2019 새활용 패션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새활용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이번 공모전은 의류를 쉽게 구입하고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활용 소재의 패션디자인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활용 패션 디자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참가 희망자는 8월 31일까지 서울새활용플라자와 한국복식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최우수상 등 총 17명에게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한다. 입선을 제외한 수상자들에게 총 7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수족구병·A형 간염 주의보

A형 간염환자 주당 200건 발생

경기지역에서 최근 수족구병 환자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A형 간염 환자도 상승세가 주춤하기는 해도 주당 200명 안팎의 발생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으로 올해 경기도 감염병 발생 현황은 수두 1만2978명(56%), A형 간염 2685명, 유행성 이하선염 2640명(12%), 성홍열 1185명(5%), C형 간염 1006명(5%) 등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도내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수족구병 의심환자는 24주차(6월 9~15일) 27.1명에서 25주차(6월 16~22일) 43.1명, 26주차(6월 23~29일) 63.5명으로 급증했다.

물집이 주로 몸통과 얼굴에 생기는 수두와 달리, 수족구병은 발열과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발의 수포성 발진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환이나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도 보건당국은 수족구병이 0~6세 연령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발병 후 1주일까지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난 A형 간염도 한 달 전과 비교해 증가세가 수그러들었으나 여전히 주당 200건 안팎의 발생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발생 건수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지난 한 해의 3.7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배나 발생했다.

A형 간염은 심한 피로감, 식욕 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생기며 암갈색 소변이나 황달을 동반하기도 한다. 소아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은 70% 이상에서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경기 수원=김승열 기자